

## 프로이트의 레오나르도\*

김진엽

(서울대학교 미학과)

프로이트는 1910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유년의 기억”이라는 글을 발표한다. 이 글은 예술가에 대한 프로이트 자신의 본격적, 그리고 대표적 정신분석학적 비평임에도 불구하고 그리 큰 주목을 받지 못한다. 오늘날 정신분석학적 비평이 널리 유행하고 있는 현상에 비추어보았을 때 그 시조 격에 해당하는 프로이트의 글이 무시되고 있다는 점은 사뭇 의아스럽기까지 하다. 몇몇 호의적인 평가가 있기도 하였지만 그보다 높았던 비판의 목소리 탓이기도 하다. 본고는 프로이트의 글에서 이루어지는 주장과 그 주장에 대한 비판을 살펴봄으로써 정신분석학적 비평의 원류를 탐색하고자 한다.

---

\* 이 연구는 2008년도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자유 과제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주 제 어: 프로이트, 정신분석, 레오나르도 다 빈치, 독수리 환상, 정신분석학적 비평

Freud, psychoanalysis, Leonardo da Vinci, Vulture Fantasy, psychoanalytic criticism

1.

“내가 이렇게 **독수리**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운명이었던 듯하다. 왜냐하면 아주 어린 시절의 기억인 것 같은데, 아직 요람에 누워 있을 때 독수리 한 마리가 내게로 내려와 **꽂지**로 내 입을 열고는 여러 번에 걸쳐 그 꽂지로 내 입술을 찔던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sup>1)</sup>

위의 글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직접 회상한 자신의 유년 기억이다. 프로이트는 이 기억을 해석하는 작업을 벌인다. 그의 해석을 살펴보자.

먼저, ‘나’는 물론 레오나르도 다빈치다. 이는 해석의 여지가 없다.

다음으로 독수리는 레오나르도의 어머니라고 프로이트는 해석한다. 왜 독수리가 레오나르도의 어머니일까? 이러한 해석의 까닭은 다소 복잡하다.

프로이트는 그 까닭을 고대 이집트에서 찾기 시작한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독수리를 어머니의 상징으로 여긴다. 고대 이집트의 상형 문자에서 모성의 여신은 독수리의 머리로 표현되고는 한다. 그리고 그 모성의 여신은 무트(Mout)라고 불렸는데, 이는 오늘날 무터(Mutter)나 마더(mother) 등 독일 또는 영어식 표현과도 유사하다.

그런데 레오나르도는 고대 이집트인이 아니기 때문에 레오나르도의 기억 속에 나타난 독수리를 레오나르도의 어머니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연결점이 필요하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고대 이집트와 레오나르도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교회의 교부들이 하였다. 교부들은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는 점을 방어할 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었다. 그 논리의 한 쪽에 독수리에 대한 고대 이집트인의 생각을 갖다 붙였다.

이제 어떻게 이집트의 독수리가 동정녀 마리아를 옹호하는데 사용되는지를 보자. 고대 이집트인들이 독수리를 어머니의 상징으로 보는 까닭은 독수

---

1) 지그문트 프로이트,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유년의 기억』, 『예술과 정신분석』, 정장진 옮김, 열린책들, 1997, p. 35. 영문판인 *Leonardo da Vinci and a memory of his childhood*, tr. Alan Tyson, Norton, 1964을 참고하기도 하였다. 각주에 실린 페이지는 국역본을 따른다.

리에게 수컷이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다.<sup>2)</sup> 그렇다면 독수리는 어떻게 종족을 번식할까? 그 답은 독수리들은 하늘 높이 올라가 자궁을 열고 바람의 힘으로 수태를 한다는 것이다.<sup>3)</sup> 이집트인들의 이러한 생각에 교부들은 무릎을 쳤다. 독수리가 그러할진대, 인간인들 그러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는가. 동정녀 마리아도 얼마든지 혼자 수태할 수 있다.

“교부들은 열성적으로 독수리에 관한 이야기에 몰두했는데, 이는 자연의 원리에서 끌어낸 논리를 가지고 동정녀 마리아의 분만을 부정하는 자들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었다. 거의 모든 교부들이 이것을 언급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다.(프로이트 1964: 46)”

레오나르도는 이러한 교부들의 전통에 친숙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레오나르도가 약 17년간(1482~1499) 머무르며 <암굴의 성모>와 <최후의 만찬> 등을 그렸던 밀라노는 그 당시 피어나기 시작한 인쇄업의 중심지였으며, 레오나르도는 끝없는 탐구욕과 광대한 독서 범위를 지닌 인물이었으며, 메디치와 스포르차 같은 강력한 후원자 밑에서 일했던 레오나르도가 교부들과 접촉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고대 이집트인들, 교부들, 레오나르도로 이어진 연결 고리를 통해 프로이트는 독수리가 레오나르도의 어머니의 상징이라는 점에 대한 해석을 다음과 같이 마무리 짓는다.

“이제 우리는 레오나르도의 독수리 환상을 다음과 같이 추측해 볼 수 있다. 어느 날 그가 한 신부의 집에서나 혹은 어떤 자연 과학 서적에서 독수리는 모두 암컷이고 수컷들의 도움 없이도 생식한다는 것을 읽었을 때, 그의 머릿속에는 한 기억이 떠올라 이 이야기로 변형되었는데, 이 기억에 따르면 레오나르도 역시 어머니는 있으나 아버지는 없는 독수리의 자식이었던 것이다(프로이트 1964: 47)”.

2) 프로이트, 위의 책, p. 44.

3) 프로이트, 위의 책, p. 45.

이러한 해석에 근거하여, 프로이트는 레오나르도가 유년의 몇 년 동안 아버지 없이 어머니와 지내다 아버지 집으로 입양되었으리라고 추측한다. 레오나르도의 이러한 유년 시절이 수컷 없는 독수리와 남편 없는 어머니를 동일시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제 프로이트가 풍지를 무엇으로 해석하는 지를 보자.

“확언하건대, 독수리의 풍지는 한 사물을 다른 사물을 통해 지칭하는 언어의 혼한 기술로서 남성의 성기, 즉 페니스 이외의 다른 것을 지칭할 수 없다.(프로이트 1964: 50)”

풍지를 남성의 페니스로 간주하는 프로이트의 해석은 단호하다. 이를 이해하기도 그리 어렵지 않다. 정작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독수리와 풍지가 결합해 생긴다. 물론 독수리가 풍지를 지닌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문제는 독수리를 어머니로 해석하고 풍지를 페니스로 해석할 때 생긴다. 이 해석을 따를 때, 어머니가 페니스를 달고 있는 형색이다.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까?

프로이트는 그 답을 남자아이가 거세 콤플렉스의 지배 아래 놓이기 이전의 시기, 즉 남자 아이가 자신의 페니스를 남녀를 불문하고 다른 사람도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시기에서 찾는다. 이 시기에 남자 아이는 자신의 페니스를 “너무나도 귀중하고 중요한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자신과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것이 없으리라는 생각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다(프로이트 1964: 53).” 따라서 이 시기의 남자아이는 어머니도 페니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sup>4)</sup> 레오나르도의 유년 기억에서 어머니가 페니스를 달고 있는 것도 이런 생각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4) 어머니, 넓게는 여자도 페니스를 지니고 있다는 생각의 흔적을 프로이트는 인류 문화의 곳곳에서 찾아낸다. 이미 언급한 독수리 머리의 이집트 여신 무트도 여인의 젖가슴과 발기된 페니스를 동시에 갖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다른 이집트의 여신이나 그리스의 여신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고 한다. 아울러, 성인이 되어서도 남성들이 여인의 다리나 긴 머리에 집착을 보이는 현상도 여성 페니스라는 환상의 대체물을 찾기 때문이라고 프로이트는 주장한다.

독수리와 콩지를 중심으로 한 지금까지의 해석을 통해, 프로이트는 레오나르도의 유년의 기억에 대한 다음과 같은 1차적 해석을 내놓는다.

“어린 시절 레오나르도의 애정 어린 호기심은 어머니를 향해 있었고 그 때 레오나르도는 어머니에게도 자신의 페니스와 똑같은 것이 있다고 여겼다(프로이트 1964: 57).”

그런데 이 해석으로 레오나르도의 유년 기억에 대한 해명이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여전히 또 다른 궁금증이 남는다. 이는 독수리가 콩지로 레오나르도의 입을 열고 여러 차례 입술을 찼다는 기억의 마지막 부분과 연관된다. 이 마지막 부분도 다소 기묘한 형색을 띤다. 독수리의 콩지가 어머니의 페니스를 상징한다면, 독수리의 콩지가 레오나르도의 입술을 찼다는 묘사는 변태적이기까지 하다. 이 마지막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프로이트는 이 부분이 레오나르도의 동성애적 기질을 드러낸다고 해석한다.<sup>5)</sup> 페니스를 상징하는 콩지와 레오나르도의 입을 연관시켜 보면, 그리고 레오나르도가 동성에 혐의로 고발된 적이 있음을 고려해 보면,<sup>6)</sup> 프로이트의 해석에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앞서 연상한 변태적 장면을 떠올려 보면 이 마지막 부분은 동성애라기보다는 엽기적 근친상간에 가깝게 해석될 수도 있다. 프로이트는 동성애로 읽는 자신의 해석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 프로이트는 자신의 해석을 지극히 당연한 낭 표방한 후, 레오나르도가 어떻게 동성애적 성향을 띠게 되었는지를 해명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이제 우리가 이 해명을 살펴보는데 초점을 맞추어보자.

프로이트에 따르면, 남성 동성애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동성애자들은 유아기 때 어머니인 한 여성과 매우 강한 에로틱한 관계를 갖고 있다.<sup>7)</sup>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 어머니가 자식을 과도하게 사랑하거나 아버지

5) 프로이트, 위의 책, p. 57.

6) 찰스 니콜, 『레오나르도 다 빈치 평전』, 안기순 옮김, 고즈윈, 2007, p. 131.

7) 프로이트, 위의 책, p. 58.

가 뒤로 물러나 있음으로 인해서 강화되기도 한다.<sup>8)</sup> 유아기 때 엄한 아버지의 존재는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한 억압과 금지로 작용하여 어머니를 포기케, 그리고 아버지를 원망케 만들으로써, 남자 아이는 이후 어머니도 아니고 남성도 아닌 다른 여성을 선택한다.<sup>9)</sup> 물론 남성 동성애자들의 경우도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계속 의식 내에서 발전시킬 수는 없다. 엄한 아버지의 금지 이외에도 어머니와의 사랑을 가로 막는 물리적, 문화적, 사회적 등 다른 억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남성 동성애자들은 어머니와의 사랑이 워낙 깊었기 때문에 의식에서 억압된 어머니와의 사랑은 무의식 속에 고착된다.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의식에서 억압됨으로 인해서 아이는 이 사랑을 자신의 무의식 속에 간직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년들을 쫓아다니는 동성애자가 되었을 때, 남자아이는 실제로는 자신을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배반한 자로 만들 수도 있는 다른 여인들을 피해 다니는 것이다.(프로이트 1964: 60)”

앞서 독수리에 대한 해석을 통해 프로이트는 레오나르도가 유년의 몇 년 동안을 편모슬하에서 자라다가 어머니와 헤어져 아버지 집에 입양되었으리라고 추측한 바 있다. 레오나르도의 유년에 대한 프로이트의 추측을 동성애자의 특징에 관한 프로이트의 분석과 연관시키면, 레오나르도가 어떻게 동성애자가 되었는지에 대한 다음과 같은 추측이 가능하다.

레오나르도는 태어난 후 몇 년간 아버지 없이 편모슬하에서 자란다. 모자간의 사랑은 지극했을 것이다. 유아기의 이 기간 동안 레오나르도는 아버지의 금지나 억압 없이 어머니와 에로틱한 관계를 형성했을 것이고, 이는 레오나르도가 동성애적 성향을 보이게 되는 자양분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머니에 대한 레오나르도의 사랑은 의외의 사건을 통해 송두리째 무너진다. 판 여자와 결혼해 있던 아버지 집으로의 입양이 돌연히 결정된 것이다. 사랑은 억압된다. 그렇지만 무의식 속에 깊게 드리운다. 그 무의식은 평생 레오나르도를 떠나지 않으며 다른 여인에 대한 사랑을 가로 막는다. 결국 레오나르도는 동성애자가 되어 버렸다.

8) 프로이트, 위의 책, pp. 58-59.

9) 프로이트,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 김정일 옮김, 열린책들, 2003, p. 134.

## 2.

“레오나르도와 같은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만이 [1]<조콘다>와 <성 안나와 함께 있는 두 명의 성녀와 아기 예수>를 그릴 수 있고, [2]자신의 작품 세계에 그토록 서글픈 운명을 부여할 수 있으며, 또 자연에 대한 연구자로서 전대미문의 창조력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그의 모든 업적들과 불운의 열쇠가 어린 시절의 독수리 환상 속에 내포되어 있었던 것만 같기도 하다.(프로이트 1964: 112)”

위의 언급에서처럼, 프로이트는 독수리 환상이라 명명할 수 있는 레오나르도의 유년 기억이 레오나르도의 예술 세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고 본다.

## 2.1.

먼저, 레오나르도와 같은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만이 왜 <조콘다>와 <두 명의 성녀와 아기 예수>를 그릴 수 있는지 살펴보자. 여기서 <조콘다>는 <모나리자>를 의미한다. <조콘다>는 모나리자가 피렌체 상인 프란체스코 델 조콘다의 부인인 리자 게라르디니의 초상화일 것이라는 추측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프로이트는 <모나리자>를 이해하는데 <두 명의 성녀와 아기 예수>가 도움을 준다고 본다.

<두 명의 성녀와 아기 예수>에는 예수,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 예수의 할머니이자 마리아의 어머니인 안나, 이렇게 3명이 등장한다. 이 그림에서 아기 예수가 누구인지는 확실하고, 두 손을 뻗어 아기 예수를 껴안으려는 여인이 마리아이며, 그 뒤에서 살짝 미소를 지으며 바라보는 여인이 안나이다. 여기서 프로이트는 안나와 마리아가 모녀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안나가 여전히 젊고 아름답게 그려졌다는 점에 주목한다. 모녀간임에도 불구하고



<도판 1> 레오나르도 다 빈치,  
<모나리자>, 1503~06, 나무판 위에  
유채, 77×53 cm, 루브르 박물관 소장.



<도판 2> 레오나르도 다 빈치, <두 명의  
성녀와 아기 예수>, 1508년경, 나무판  
위에 유채, 168×112 cm, 루브르 박물관  
소장.

하고 안나와 마리아가 세월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프로이트는 그 까닭을 이 그림 속에 레오나르도의 유년 기억이 투영되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미 언급했듯이, 프로이트는 레오나르도가 태어난 후 생모인 카타리나와 편모슬하에서 몇 년간 지내다 생부에게 입양되어 계모인 도나 알비에라와 함께 살았다고 추측한 바 있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두 명의 성녀와 아기 예수>는 레오나르도의 유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다. 아기 예수는 레오나르도, 안나는 레오나르도의 생모인 카타리나, 마리아는 레오나르도의 계모인 도나 알비에라인 것이다. 이 그림에서 마리아로 분한 계모 도나 알비에라는 아기 예수로 분한 레오나르도를 껴안으려 하고 있고 안나로 분한 생모 카타리나는 한 품 정도 떨어져 미소를 짓고 있다. 프로이



트에 따르면, 레오나르도는 <두 명의 성녀와 아기 예수>에서 자신의 생모인 카타리나가 “처음에는 남편을, 그리고 이어 아들을 양보하면서 한 불행한 여인으로서 느꼈을 원통함을 성녀 안나의 행복한 미소를 통해 부인하고 있다.(프로이트 1964: 82)”

그러므로 안나의 미소는 마냥 행복한 미소는 아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내는 슬픔과 회한이 깃든 그러나 아들의 행복을 비는 미소이다. 이러한 이중적 속성은 모나리자의 미소에도 투영되어 있다. 실제로 <모나리자>와 <두 명의 성녀와 아기 예수>는 비슷한 시기에 그려졌으며, 안나와 모나리자는 닮아 있다. 양자 모두 레오나르도의 생모 카타리나의 분신인 셈이다. 따라서 프로이트는 모나리자의 미소 속에도, “이중의 의미, 즉 무한한 사랑의 약속과 불행을 예고하는 듯한 위협(프로이트 1964: 85)”이 동시에 재현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토록 많은 비평가들이 찬양했던 모나리자의 신비스러운 미소는 어머니에 대한 레오나르도의 유년 시절 짝티워진 애증에 다름 아닌 것이다.

## 2.2

이제 레오나르도와 같은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만이 왜 자신의 작품 세계에 그토록 서글픈 운명을 부여할 수 있으며, 또 자연에 대한 연구자로서 전대미문의 창조력을 획득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자. 레오나르도가 작품 세계에 서글픈 운명을 부여한 점과 자연에 대한 창조적 연구를 수행한 점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으므로 이 두 가지 점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다.

작품 세계에 서글픈 운명을 부여하였다는 점은 레오나르도가 미완성 작품을 여럿 남기고, 작품을 원래 주문자에게 넘겨주지 못하고, 작품이 훼손되거나 방치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의미한다.<sup>10)</sup> 물론 그렇게 된 까닭으

10) 레오나르도가 1481년경부터 그린 <동방박사의 경배>는 미완성인 상태로 남아 있다. 이후에 필리피노 리피가 완성하였고, 비슷한 시기에 그린 <성 히에로니무스>는 미완성인 상태에서 고물상과 구두수선공의 작업장 등으로 흩어졌다가 다시 수집되어 지금은 바티칸 미술관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엔리카 크리스피노, 『레오나르도:

로는 경제적, 역사적, 정치적, 실험적 이유 등도 존재한다. 그런데 프로이드는 근본적 까닭을 레오나르도의 유년 시절에서 찾았다.

“창조하는 예술가는 그의 작품에 대해 스스로를 아버지로 느끼게 된다. 레오나르도의 회화 창작에 있어 아버지와의 동일시는 해로운 결과를 초래했다. 그는 그림을 그렸지만 아버지가 그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림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았다. 훗날 아버지의 보살핌이 있기는 했지만 그의 강박 충동을 변화시킬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이 강박 충동은 어린 시절에 형성된 것이고, 무의식 속에 억압되어 남아 있는 것은 이후의 경험들을 통해 수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프로이트 1964: 92)”

레오나르도의 어린 시절에 대한 프로이트의 해석, 즉 레오나르도가 어린 시절 아버지 없이 어머니 품에서 사랑을 받으며 몇 년간 자라다 어머니와 헤어져 아버지에게 입양된다는 프로이트의 해석을 상기한다면 위의 인용문을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아버지의 영향은 예술가로서의 레오나르도에게는 부정적 영향을 끼쳤지만 자연에 대한 창조적 탐구자로서의 레오나르도에게는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 아버지의 부재는 레오나르도에게 아버지의 권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를 일찍부터 가져다주었다. 레오나르도는 유아기 때 아버지가 가하는 거세의 위협에서 벗어나 성적 호기심을 거리낌 없이 발동시켰을 것이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는 유아기 때부터 왕성하게 발휘한 성적 호기심을 자연에 대한 지적 호기심으로 승화시켜 나간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레오나르도의 유년기 성적 호기심이 성년기 지적 호기심으로 승화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상징이 ‘새’이다.<sup>11)</sup> 레오나르도의 유년기 성적 호기심은 유년 기억 속에 등장하는 독수리를 통해 드러난다. 그리고 레오나르도의 성년기 지적 호기심은 비행기를 통해 나타난다. 널리

---

신화가 된 르네상스 맨’, 김경란 옮김, 마로니에북스, 2007을 참조하였다.

11) 프로이트,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유년의 기억」, p. 98.

알려져 있듯이, 성년기에 레오나르도는 새처럼 하늘을 날고파 비행기 발명에 골몰한다. 이렇듯, 레오나르도에게 새는 유년 시절 성적 호기심의 상징이자 성년 시절 지적 호기심의 상징이다.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자유로이 펼쳐졌던 레오나르도의 유년기 성적 호기심은 성년기에 들어 지적 호기심으로 승화되어 훨훨 날아오른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종교나 예술 대신 자연 탐구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 3.

지금까지 1장과 2장을 통해 레오나르도에 대한 프로이트의 해석을 살펴 보았다. 1장에서는 레오나르도의 유년 기억에 대한 프로이트의 해석이 다루어졌고, 2장에서는 1장과의 연관성 속에서 레오나르도의 예술과 삶에 대한 프로이트의 해석이 다루어졌다. 이번 장에서는 프로이트의 해석에 대한 주요한 비판들을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자.

#### 3.1.

레오나르도의 유년 기억에 대한 프로이트의 첫 번째 해석은 독수리를 레오나르도의 어머니로 간주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해석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비판은 잘못된 번역과 관련된다.<sup>12)</sup> 프로이트는 이탈리아어로 쓰인 레오나르도의 글을 독일어 번역본을 통해 읽었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탈리아 원본의 ‘nibio’가 독일어 번역본에서는 ‘Geier’로 번역되었다. 전자는 솔개를, 후자는 독수리를 뜻한다. 비록 새이기는 하지만, 솔개가 독수리로 번역된 것이다. 1장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프로이트는 독수리를 이집트 신화, 동정녀 마리아, 교부들 등과 차례로 연관시키며 레오나르도의

12) Eric Maclagan, “Leonardo in the Consulting Room”, Burlington Magazine, XLII (1923), pp. 54-57.

어머니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레오나르도의 유년 기억에 등장하는 새가 독수리가 아니라 솔개일 경우, 그 솔개를 레오나르도의 어머니의 상징으로 해석하려면 다른 논의가 필요하다.

### 3.2.

독수리가 레오나르도의 어머니라는 해석에 근거하여, 프로이트는 레오나르도가 태어난 후 몇 년 동안 아버지 없이 어머니와 지내다 아버지 집으로 입양되었으리라고 추측한 바 있다. 그런데, 여하한 해석에 근거하든 이 추측은 의심의 여지가 많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452년 레오나르도가 태어났을 때 그의 친할아버지 안토니오 다 빈치는 다음과 같은 상세한 기록을 남긴다.

“내 아들, 세르 피에로의 아들인 내 손자가 4월 15일, 토요일 밤 3시에 태어났다. 레오나르도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피에로 디 바르톨로메오 신 부님이 세례를 해주셨다. 난니 빈티, 메오 디 토니노, 피에로 디 말볼토, 난 니 디 벤초, 아리고 디 조반니 테데스코, 모나리자 디 도메니코 디 브레토네, 모나 안토니아 디 줄리아노, 모나 니콜리자 델 바르나, 난니 디 벤초의 딸, 모나 마리아, 모나 피파 디 프레비코네, 이들이 모두 우리 손자의 대부와 대모들이다.(크리스피노 2002, 김경란 역, 2007: 10)”

무려 열 명의 대부와 대모가 참석한 자리에서 신부를 통해 레오나르도가 세례를 받았다는 점, 그리고 친할아버지가 이를 상세하게 기록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레오나르도가 출생 직후 친가로부터 떨어져 홀어머니 곁에서 자랐으리라는 프로이트의 추측은 사뭇 의심스럽다.

### 3.3.

마지막으로 독수리-공지-입을 연결하여 레오나르도의 동성애적 성향을 읽어내는 프로이트의 해석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된다. 미술사학자인 마이

어 샤피로는 레오나르도의 유년 기억과 유사한 유아기 환상을 담고 있는 여러 일화들과의 비교를 통해 이러한 비판을 수행한다. 그에 따르면, 유아기 환상을 담고 있는 일화들의 공통점은 그 유아가 어른이 되었을 때의 운명이나 재능의 징조를 보여준다는데 있다.<sup>13)</sup> 그리고 그 운명이나 재능의 징조는 동물들이 주인공의 입에 접근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마이다스의 경우에는 어린 시절 자고 있을 때 그의 입에 개미가 곡식을 가득 채워주었다. 그 아이는 이후 황금의 손 마이다스 왕이 되었다. 플라톤은 아가 시절 요람에서 쿵쿵 자고 있었을 때 그의 입술에 벌이 날아 앉았다. 그 아가는 나중에 능란한 화술을 구사하게 된다. 그리스의 서정시인 핀다로스의 경우에도 어린 시절 잠든 그에게 벌이 날아들어 그의 입술에 밀랍을 발라주었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는 유럽 문명 전체에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었으며, 레오나르도의 시대에도 선집으로 출판되어 두루 읽혔다.

따라서 샤피로에 따르면, 새가 입을 건드리는 레오나르도의 유년 기억도 레오나르도의 운명이나 재능의 징조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어떤 운명이나 재능의 징조일까?

널리 알려져 있듯이, 레오나르도는 공학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공학자 레오나르도에게 최고의 목표 중 하나는 비행이었다. 거대한 새를 만드는 것을 중요한 일로 여겼으며 실제로 설계도를 남기기도 하였다.<sup>14)</sup> 유년의 기억을 썼던 당시인 1505년경에도 레오나르도는 거대한 새의 제작에 골몰하고 있었다. 이 당시 쓰인 또 다른 글인 「새의 비상에 대해서」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커다란 새가 거대한 백조(ciceri)의 등 위로 첫 비상을 할 것이다. 온 우주를 경이로 채우며, 온 역사를 명성으로 충만하게 하며, 자신이 태어난 등지에 영원한 영광을 돌리며.(니콜 2005, 안기순 역, 2007: 41)”

13) Meyer Schapiro, “Leonardo and Freud: An Art-Historical Study”,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s*, vol. 17, no. 2 (Apr., 1956), p. 152.

14) 마틴 켈프, 『레오나르도』, 임산 옮김, 을유문화사, 2006, p. 135, p. 140.

이 말은 레오나르도가 피렌체 북쪽 피에졸레 근처의 산인 몬테 체체리(Monte Ceceri)의 정상에서 비행기를 실험하고픈 포부를 밝힌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sup>15)</sup> 실제로 비행기 실험을 했다는 명백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레오나르도는 커다란 새인 비행기를 발명키 위해 실제 새들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나갔다. 새와 비슷한 골격을 지닌 비행기 날개를 구상했으며, 새의 날개 오목한 부분 아래서 생겨나는 공기의 소용돌이를 스케치했으며, 새 꼬리의 작은 움직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밝혀냈다.<sup>16)</sup>



<도판 3> 레오나르도 다 빈치가 남긴 새와 비행기에 관한 다양한 스케치들.

이런 맥락에서 살펴보았을 때, 유년의 기억 속 레오나르도의 입술에 날아온 새는 비행기 제작에 골몰하는 위대한 과학자로서의 레오나르도의 운명을 예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레오나르도 스스로도 유년의 기억을 상기하면서 새에 대한 자신의 관심이 운명과 같다고 토로한 바 있다.

그렇다면, 꿈지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프로이트가 레오나르도의 동성애를 읽어낼 때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페니스로 해석된 꿈지였다. 꿈지는 비행기 연구 과학자로서의 레오나르도의 운명이나 재능과 어떤 연관을 맺

15) 니콜, 『레오나르도 다 빈치 평전』, p. 41.

16) 켈프, 『레오나르도』, pp. 137-138.

을까?

샤피로에 따르면, 콩지도 비행기와의 연관 속에서 해명될 수 있다.<sup>17)</sup> 샤피로는 레오나르도가 남긴 새의 콩지에 대한 관찰 기록을 그 근거로 든다. 그 기록에서 레오나르도는 새의 콩지가 비행 중 방향 선회에 날개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함을 역설하고 있다. 레오나르도의 새의 콩지에 대한 이러한 관찰은 비행기 연구와 밀접한 연관을 지녔음에 틀림없다. 따라서 유년의 기억 속에 등장하는 콩지는 레오나르도가 성년이 되어 새의 관찰을 통해 비행기 개발에 골몰하는 와중에 무의식적으로 상기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샤피로는 <모나리자>와 <두 명의 성녀와 아기 예수>에 대한 프로이트의 해석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프로이트는 <두 명의 성녀와 아기 예수>에 등장하는 안나와 마리아가 모녀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엇비슷한 나이로 젊게 그려졌다는 점에 주목하여 안나와 모나리자를 레오나르도의 생모인 카타리나와 연관시켜 해명할 바 있다. 그런데 샤피로는 안나와 마리아가 레오나르도의 그림보다 훨씬 이전 시기의 그림들에서도 이미 엇비슷한 나이로 젊게 그려졌었다고 주장한다.<sup>18)</sup> 그리고 그 예로 1367년 그려진 Luca di Tome의 그림 등 여타 많은 그림들을 열거한다.<sup>19)</sup> 안나를 연배보다 젊게 그리는 이러한 화풍은 나이 든 여자들을 젊고 아름답게 묘사하는 예술사적 전통에 따르는 것이기도 하지만,<sup>20)</sup> 안나를 마리아와 마찬가지로 원죄없는 잉태(Immaculate Conception)라는 맥락에서 보려는 신학적 교리에 영향을 받기도 한 것이다.<sup>21)</sup> 따라서, 샤피로에 따르면, 레오나르도의 <두 명의 성녀와 아기 예수>에서 안나와 마리아가 엇비슷하게 젊게 그려진 까닭도 예술

17) Schapiro, "Leonardo and Freud: An Art-Historical Study", pp. 151.

18) Schapiro, 위의 글, p. 161.

19) Schapiro, 위의 글, pp. 163-164. 특히, p. 164의 각주 65를 참고하기 바란다.

20) Schapiro, 위의 글, p. 162. 샤피로는 이러한 전통이 로마에서부터 중세를 거쳐 르네상스 시기까지 문학과 미술 등의 분야에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고 주장한다.

21) Schapiro, 위의 글, p. 159. 이러한 신학적 교리에 따르면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를 아담과 이브의 원죄를 물려받지 않고 임신하였듯이 마리아의 어머니인 안나도 원죄를 물려받지 않고 마리아를 임신하였다.

사적 전통과 신학적 교리를 중심으로 한 사회문화적 맥락에 있는 것이지 프로이트가 주장하듯 레오나르도 개인의 가정사에 있는 것이 아니다.

#### 4.

지금까지 프로이트의 레오나르도에 대한 여러 비판을 살펴보았다. 이제 이 비판들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자.

먼저, 오역에 근거해 해석을 했다는 첫 번째 비판을 살펴보자. 솔개가 독수리로 오역되었다는 지적은 타당하다. 그렇지만 그 오역에 근거한 해석도 타당하지 못한 것인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레오나르도의 꿈에 등장한 것을 솔개든 독수리든 새라는 하나의 상징으로 볼 경우, 그 새가 의미하는 바는 동일할 수 있다. 예컨대, 에리히 노이만은 많은 신화들에서 새가 어머니의 상징으로 등장한다고 지적하며 독수리를 어머니로 연결시키는 프로이트의 해석이 틀린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sup>22)</sup>

앞서 살펴본 두 번째 비판은 레오나르도가 몇 년간 편모슬하에서 자랐으리라는 프로이트의 추측은 의심스럽다는 점이었다. 비판의 증거는 레오나르도의 할아버지가 남긴 세례 기록이었다. 프로이트가 이 세례 기록을 보았는지 여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세례 기록은 아닐지라도, 프로이트도 레오나르도가 탄생 직후 어머니와 헤어져 친가에서 자랐다는 주장을 접하기는 하였다.<sup>23)</sup> 그렇지만, 프로이트는 그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레오나르도가 탄생 후 몇 년간 편모슬하에서 자랐다는 견해를 취한다.

“레오나르도의 어린 시절에 관한 가장 확실한 정보는 1457년의 공식 서류를 통해 알 수 있을 뿐인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피렌체 징세 장부로서

---

22) Erich Neumann, *Art and the Creative Unconscious*, Routledge, 1959, pp. 7-10을 참고하기 바란다.

23) Alan Elms, “Freud as Leonardo: Why the First Psychobiography Went Wrong”, *Journal of Personality* 56, 1988, p. 23.



이 서류상에 레오나르도는 빈치가 세르 피에로의 다섯 살 난 서자로 언급되어 있다.(프로이트 1964: 34)”

“기록된 바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 세르 피에로 다빈치는 레오나르도가 탄생하는 그 해에 귀족인 도나 알비에라와 결혼을 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자료들이 입증하듯이- 레오나르도는, 할아버지의 집이라고 해야 옳겠지만, 어쨌든 아버지의 집으로 입양된다. 그런데 아직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젊은 부인에게 처음부터 사생아를 맡긴다는 것은 관례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따라서 공연히 적자를 기다리며 몇 년 동안 실망의 세월을 보낸 이후에야, 아마도 매혹적인 소년이 되어 있었을 사생아를 입양하기로 결정했을 것이다. 만일 적어도 세 살, 혹은 어쩌면 다섯 살이 되어서야 그가 편모를 떠나 친아버지와 계모로 이루어진 부모에게 간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우리가 독수리 환상을 해석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프로이트 1964: 48)”

프로이트가 세례 기록을 보았다면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되었을까? 편모슬하에서 탄생 후 초기를 보냈다는 주장을 철회할 수도 있지만, 그 주장을 계속 유지할 수도 있다. 탄생 직후 친가에 머물며 세례를 받았지만 아버지가 친모와 헤어져 재혼하는 바람에 편모슬하에서 자라다 친모도 재혼을 하게 되자 세 살에서 다섯 살 무렵 다시 친가로 돌아왔을 가능성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하한 경우이든 새로운 확실한 기록이 나타나기까지는 레오나르도 탄생 직후의 양육을 둘러싼 논란이 쉽사리 잠재워지기는 힘들다. 따라서 프로이트가 이 점과 관련하여 오류를 범했다는 비판이 반드시 타당한 것은 아니다.

프로이트의 레오나르도에 대한 세 번째 비판은 주로 미술사학자인 샤피로의 비판이었는데, 그가 제기한 비판의 일부는 레오나르도의 유년 기억이 프로이트가 생각하듯 성에 대한 관심이 아닌 비행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었다.

프로이트도 레오나르도의 유년 기억이 비행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그렇지만 프로이트는 비행에 대한 관심의 배후에 있는 욕망의 층위를 해석해 내려고 한다.

“이 기억을 설명하자면 드러난 그대로의 의미, 즉 평소 새들의 비상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던 그가 독수리의 비상에 운명을 결정짓는 어떤 의미를 부여했다는 정도로 설명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이 기억을 낮게 평가한다면 이는 한 민족의 선사시대가 제공하는 전설과 구전과 이에 대한 해석들을 가볍게 여겨 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잘못을 범하는 것이 된다.(프로이트 1964: 38)”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비상을 꿈꾸는 것인가? 정신분석학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다. 난다는 것, 혹은 새가 된다는 것은 다른 욕망이 위장된 것일 뿐인데, 이 욕망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언어와 사물에 대한 많은 탐구를 거쳐야 할 것이다.(프로이트 1964: 98)”

“성적 탐구를 하는 동안 어린아이들이 그들로서는 도저히 알 수는 없으나 매우 중요한 이 영역에서 자신들은 아는 것도 행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는 뭔가 위대한 일을 어른들은 할 수 있다고 추측하여 같은 것을 해보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이 아이들의 가슴 속에 일어나게 된다. 그리하여 아이들은 이 욕망을 비상의 형태로 꿈꾸거나 혹은 훗날 비상의 꿈을 꾸게 될 때 이 꿈에 그들의 욕망을 싣게 된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오늘날에 이르러서야 그 목표가 달성된 항공술 역시 어린 시절에 그 성적 기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프로이트 1964: 99)”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프로이트는 비행에 대한 레오나르도의 탐구욕이 성에 대한 어린 시절의 호기심에서 유래하였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다.<sup>24)</sup>

사피로가 제기한 비판의 또 다른 부분은 프로이트가 레오나르도의 작품

---

24) 프로이트,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유년의 기억」, p. 49.

들에 대한 역사적, 사회문화적 맥락을 통찰하지 못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샤피로는 이러한 비판 겸 불만을 앞서 언급한 논문의 곳곳에서 피력하고 있다. 그런데, 안나와 마리아를 엇비슷한 나이로 그리는 것이 샤피로가 주장하듯 예술사의 전통이라고 하더라도 레오나르도가 그 많은 여러 그림의 소재들 중 안나와 마리아를 자신 그림의 소재로 삼은 데는 개인적 이유가 있을 수 있지 않은가? 안나와 마리아를 엇비슷한 나이로 그린 기존의 그림들을 보고 친모와 계모 사이에서 보낸 레오나르도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올라 더욱 공들여 <두 명의 성녀와 아기 예수>를 그렸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은가? 기존의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한다고 했을 때 그 선택에는 특정한 개인적 동기가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샤피로 스스로도 인정했듯이 역사적 또는 사회문화적 설명과 심리학적 설명이 대립되는 것은 아니다.<sup>25)</sup> 레오나르도 및 그의 작품에 대한 역사적 또는 사회문화적 연구가 그와 그의 작품의 밑바탕에 깔린 무의식적 세계에 대한 접근을 도와줄 수 있다.

## 5.

프로이트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유년의 기억」을 마무리하며 불충분한 또는 허점 많은 자료 탓에 자신의 글이 정신분석학적인 한 편의 소설을 썼다는 느낌을 주었는지도 모른다고 말한다.<sup>26)</sup> 앞서 살펴본 비판들도 대부분 사실적 부분에 대한 오류를 지적하는데 맞추어져 있다. 그런데 프로이트의 레오나르도가 한 편의 소설이면 어떠랴. “결코 경험해보지 못한 수많은 이유들로 가득 찬 [...] 자연의 이유들이 우리들의 수많은 시도들을 통해 인간의 경험을 향해 길을 내며 다가올 때, 인간 존재인 우리들 각자는 이 시도들 하나하나일 뿐(프로이트 1964: 113)”일진대.

25) Schapiro, “Leonardo and Freud: An Art-Historical Study”, p. 177.

26) 프로이트, 위의 책, p. 109.

## 참고문헌

- 지그문트 프로이트,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유년의 기억」, 『예술과 정신분석』, 장진 옮김, 열린책들, 1997
- \_\_\_\_\_,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 김정일 옮김, 열린책들, 2003
- 엔리카 크리스피노, 『레오나르도: 신화가 된 르네상스 맨』, 김경란 옮김, 마로니 에북스, 2007
- 마틴 캠프, 『레오나르도』, 임산 옮김, 을유문화사, 2006
- Sigmund Freud, *Leonardo da Vinci and a memory of his childhood*, tr. Alan Tyson, Norton, 1964
- Eric Maclagan, “Leonardo in the Consulting Room”, *Burlington Magazine*, XLII (1923)
- Meyer Schapiro, “Leonardo and Freud: An Art-Historical Study”,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s*, vol. 17, no. 2 (Apr., 1956)
- Erich Neumann, *Art and the Creative Unconscious*, Routledge, 1959
- Alan Elms, “Freud as Leonardo: Why the First Psychobiography Went Wrong”, *Journal of Personality* 56, 1988

원고접수일: 2010년 5월 3일

심사완료일: 2010년 5월 21일

게재확정일: 2010년 5월 31일

ABSTRACT

---

## Freud's Leonardo

Kim, Jinyup

Throughout the book of *A Childhood Reminiscence of Leonardo Da Vinci*, Freud introduces his psycho-analysis on Leonardo's personality. Freud focuses on analyzing Leonardo's childhood dream or fantasy of the vulture. According to Freud, Leonardo's vulture dream reflects Leonardo's childhood as an illegitimate son who brought up without the father's presence. While Freud substitutes the vulture for the mother based on Egyptian hieroglyphic writing, the vulture becomes a representation of Leonardo's erotic affection for his mother. As Leonardo grew up, the subject for Leonardo's affection eventually shifted from his mother to homosexuality. Considering Freud's analysis of the vulture's tail as a phallic symbol which replaces mother's breast, the vulture's action of hitting Leonardo's mouth with its tail becomes a sign which symbolizes homosexuality.

Leonardo being adopted by his father is another important incident in Leonardo's childhood. After the adoption, the sudden presence of the father interrupts Leonardo's erotic affection for his natural mother. As Leonardo grew up under his father and stepmother, Leonardo transformed his libido (sexual energy) into an energy which led him to create art works and observe natural phenomenon. In order to show the impact of his childhood

memories on Leonardo's paintings and inventions, Freud introduces the analysis on St. Anne with Mary and the infant Christ and Leonardo's interest in inventing a flying machine.

However, Meyer Schapiro argues that Freud's reconstruction of Leonardo's childhood contains historical errors and misinformation. According to Schapiro, Freud used mistranslation: 'nibio' should be translated into a kite, not a vulture. Also, the historical record of Leonardo's birth appears insufficient to support Freud's reconstruction of Leonardo's lonely childhood separated from his relatives and father. Furthermore, Schapiro offers a different analysis of Leonardo's vulture dream. While Freud's interpretation of the vulture's phallic tail in the child's mouth represents Leonardo's homosexuality, Schapiro argues that interactions between animals and mythical figures often symbolize figures' talents.

Despite Freud and Schapiro suggest different interpretations of Leonardo's vulture dream, both of them recognize the fact that Leonardo's childhood had a subconscious impact on not only Leonardo's works but also his personality. Although Schapiro points out that Freud's use of mistranslation and reconstruction of Leonardo's childhood need corrections, Freud's psychological analysis remains largely unaffected by such mistakes. Apart from detailed reconstruction of history, both Freud's psycho-analytic theory and Schapiro's historical research contribute on understanding Leonardo's personality and his art works from various perspectives.